

크로아티아, 현 총리 중심의 새 연립정부 구성

□ 현 Racan 총리,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

- 연정 내 갈등으로 Racan 총리가 사임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치불안은 지난 7월 30일 150명으로 구성된 크로아티아 의회가 Racan을 총리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승인함으로써 일단락되었음.
- Racan은 지역당인 Istria 민주회의(IDS), 농민계층을 대변하는 농민당(HSS) 등 군소 정당을 영입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 한편, 연정참여 정당의 의석은 종전 92석에 비해 84석으로 축소되었음.

□ Racan의 정치도박 성공

- 성공적으로 새 정부 구성함으로써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자유당의 Budisa 총재를 내각에서 추방하려는 Racan의 정치도박은 성공한 것으로 보임. 지난 2000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Budisa에 발목이 잡혀 능동적인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Racan은 조기총선의 위험을 피하면서 개혁정책 추진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야당 등 일부에서는 복잡한 연정 구성을 볼 때 새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야당으로 전략한 사회민주당은 내각이 확대 개편된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
- 그러나 개혁 노선보다는 수구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Budisa에 대해 사회민주당 의원들의 거부정서가 커지고 있으며, 실

지로 일부 의원들은 Racan의 사임을 초래했던 지난 7월 초의 Krsko 핵발전소 해체 법안 표결이나, 새 정부 구성 표결에서 Racan에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Budisa의 탈락은 개혁정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 제거로 평가되고 있어,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Racan의 지도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집권연정의 지지율 회복은 쉽지 않을 듯

- Racan의 가장 큰 정치적 수확은 조기총선 없이 남은 17개월의 임기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나, 이는 현 정부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
- 독재자 Tudjman이 이끌던 극우성향의 민주연맹(HDZ) 정부 하에서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계속되던 주변국과의 갈등, 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부정부패의 만연과 생활수준 저하 등으로 고통을 받아 왔음. 이에 따라 親서방, 親시장 정책을 표방하며 Racan이 이끄는 민주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음.
- Racan은 실업률 감소, 연평균 5% 이상 경제성장 및 수출 제고, 공공부채 감축, 과감한 개혁 추진,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 5대 과제를 국정의 목표로 내세우고 출발했으나, 이미 장밋빛 청사진 달성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졌으며 현 정부의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음.

책임연구원 고재호(☎3779-6663)

E-mail : kohjh@koreaexim.go.kr